

은행장 초청 오찬

우리금융의 시련기에 힘들게 노력하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어려운 일도 많고 항상 바쁘신 데 초청에 응해줘서 감사합니다. 지난번 일을 돌이켜보면 우리나라 금융인 어려운 시련의 시기 겪었고 지금도 구조조정 와중이어서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조정을 잘 했고, 몇몇 국책은행 외에 모든 은행 자율권을 확보하고 경제 원리와 시장원리에 따라서 독립적인 경영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입니다. 최근 금융시스템에 이상과 교란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 갖고 있습니다만 멀리서 지켜보니까 각기 경쟁하면서 시스템 위기 어려울 때는 힘을 합쳐 지혜롭게 대처하고 계시는 것 같아 매우 기쁩니다. 먼저 격려해 드리고 싶어 초청하려 했으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은행장을 모아놓고 말한다고 하면 잘못 전달돼 관치금융을 한다는 우려가 있어서 ‘잘 하는 구나’ 하고 그냥 보고만 있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은 금융감독원장이 하고 구경만 했습니다.

처음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격려를 하기 위해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자꾸만 정보지나 신문기사 등에 은행장 인사 얘기 끊임없이 나오고,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이 은행장의 인사가 아니라고 해도 또 나옵니다. 부총리에게 혹시 부총리가 따로 하는 일이 있나 해서 물어봐도 아

나라고 하는 데 자꾸만 나옵니다. 옛날에는 대출에도 관여했고 했는데, 지금 정부는 인사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은행장이 흔들리면 금융권이 흔들립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금융시장 더 어려워지는가 싶어 여러분을 초청했는데 그렇게라도 하는 게 도와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잠잠해졌습니까? 그래서 좀 싱겁게 됐습니다. 정부와 금융기관이 같이 한국경제를 이끌어나가기 위해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 당부도 하고 좋은 자리 됐으면 좋겠습니다.